

## <우리동네>와 카니발적 양가성

문 재 원\*

차 례

- |                      |                  |
|----------------------|------------------|
| 1. 카니발과 양가성          | 4. 의심하기와 위반의 공간  |
| 2. 이원성의 세계와 의사소통의 단절 | 5. '변두리 미학'을 위하여 |
| 3. 구술담론과 제도의 회화성     |                  |

### 1. 카니발과 양가성

<우리동네><sup>1)</sup>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크게 두가지로 정리된다. 하나는 구조적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문체적 측면이다.

김치수는 <우리동네>의 서사구조의 취약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우리동네>의 연작들은 같은 상황과 주제를 끊임없이 맴돈다는 느낌을 준다. 이것은 주체적인 자기 실현이 막혀있는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한 실현의 길을 트는 것만이 보다 밝고 활발한 사회의 실현을 가능케 한다는 것을 설득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면이 이 소설들로 하여금 주장으로나 이야기로나 저으기 지루한 감을 가지게 한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다.<sup>2)</sup>

\*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 1) 이문구, 『우리동네』(민음사, 1981)를 텍스트로 한다. 이하 작품인용은 페이지만 표시하기로 한다.
- 2) 김치수, 「근대화 속의 농촌」, 『우리동네』, 민음사, p.338.

한편, <우리동네>에서 구사되는 사투리에 대해 ‘산업화·근대화에 대한 저항적 태도로서의 언어적 토속주의’<sup>3)</sup>, ‘탈문법과 교감의 문체’<sup>4)</sup>, ‘서술형식 자체를 통한 저항’<sup>5)</sup>으로서의 문체적 의미를 발견하고 있다.

특히 전정구는<sup>6)</sup> “진행된 이야기의 전체를 통합하는 서사구조가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소설이 농민의 생활감정과 정취에 어울리는 리얼리티를 획득하는 것은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요인의 구체적 힘을 작중인물들의 ‘구술언어’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문체와 구조를 별개의 것으로 이해하여, <우리동네>의 문체적 힘을 온전하게 밝혀내고 있지 않다. 다시말해 문체가 작품 안에서 어떠한 역동적 구조를 생성해 내는가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우리동네>의 강력한 문학적 성과가 발현되는 구술적인 언어의 물질성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추상적인 검토에 머무르고 있다.

<우리동네>의 사투리, 육설, 상소리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경계 안의 표준 말과는 달리 근대화의 폭력성을 드러내며 경계의 위반을 통해 그 경계를 해체하고 전복하고자 하는 의미까지도 내재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동네>의 구술담론은 바흐친의 ‘카니발’과 만나게 된다.

바흐친은 <라블레와 그의 세계>에서 라블레의 작품을 분석하여 중세사회에서 항상 무시되어 왔던 민중의 카니발이 어떻게 르네상스의 反중세 反봉건적 세계관을 표현하는데 적절하게 이용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즉 카니발은 사순절 직전의 일주일 동안에 벌어지는 축제로서, 사순절이 금기를 의미한다면 카니발은 모든 금기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카니발은 공적인 것의 저편에 있는 제2의 세계나 생활을 세우는 것으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진리와 현실 사회의 지배로부터의 도피를 축하하는 것이다. 또한 카니발은 어떠한 것도 절대화시키지 않는 ‘유쾌한 상대성’의 원리를 강조하는 이중적이고 상호모순적인 의식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카니발적

3) 김치수, 앞의 글.

4) 임우기, 「개개의 문법에서 교감의 문법으로, 소설문체의 비판적 검토」, 『문예중앙』, 1993, 여름

5) 진정석, 「이야기체 소설의 가능성」, 『1970년대 문학연구』, 예하, 1995

6) 전정구, 「이문구 소설의 문체연구」, 『한국비평연구회』, 1998

삶이란 통상적인 궤도에서 벗어난 삶이며, 어느 한도에서는 '뒤집혀진 삶', '거꾸로된 세상에서의 삶'이다.

카니발은 최소한으로 의식이 되는 반의식이며 다른 것, 체계적인 신학, 법적인 조항, 규범적인 시학, 계급의 위계질서에 바탕을 두는 것들 사이의 틈과 구멍을 축제식으로 축하하는 것이다. 카니발은 주조된 사회 안에 생긴 틈이다. 지배이데올로기가 사회질서에 통일되고 고정되고 완성된 텍스트의 권위를 부여하려고 할 때, 카니발은 그 질서를 위협한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인 카니발이 문학의 영역으로 들어와 기존의 질서체계에서 높이 평가되었던 도덕이나 인습 등을 물질적인 육체의 차원으로 격하시킨다. 즉 높은 것, 영적인 것, 이상적인 것, 추상적인 것을 끌어내려 먹는 것 마시는 것, 性的인 것, 배설적인 것을 즐겁고 유쾌한 것으로 간주하게 한다. 그런데 이러한 격하 및 하락은 파괴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재생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sup>7)</sup>

파괴 속에서의 재생, 매장 속에서의 생성과 연결되면서 양가성(ambivalence)의 원리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다. 양가성의 의미실현은 현실 질서의 통상적인 분류체계 및 위계질서를 전도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카니발 문학은 실제적 층위가 아닌 기능적 층위에서 상대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뒤집혀진 가치관이나 삶을 나타내는 동시에 양가적이고 동적인 세계에 대한 인식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동네>의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기본적인 대결구도는 民/官의 대립이다. 이때 관은 공식, 제도, 권위, 금기의 세계를 지칭한다면 민은 곧 비공식, 일상, 위반의 세계와 이어진다. 지배이데올로기가 사회질서에 통일되고 고정되고 완성된 텍스트의 권위를 부여하려고 할 때 카니발은 그 권위적 질서를 끊임없이 위협한다. 그러므로 <우리동네>의 이원적이고 대립적 관계가 어떠한 위반과 전복의 과정을 통해 대화적 관계로 나아가는가의 문제를 밝혀내는 것이 본 글의 목적이다.

---

7) 김옥동, 『대화적 상상력』, 문학과지성사, 1988, pp.234-260 참조

## 2. 이원성의 세계와 의사소통의 단절

“지방 기별 온 것을 알려 드립니다. 누가 와서 그러는디, 와 맥이는 개를 찍어간다구, 지금 막 우리게루 사람덜이 떠나더라구 험니다. 개를 단단히 감추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나하여 구들목에 늘어진 채 누눅던 사람들이 방송도 꺼지기 전에 불 본 듯이 일어났다.

“세무서에서 나온단다~” (61)

느티울 마을에 밀주단속을 하러 나온다는 정보가 있자 느티울 농민들 자기네들끼리만의 은어로 연락을 하고 있다. “와 먹이는 개 찍어간다”는 말은 느티울 농민들 사이에서 밀주단속을 의미하는 일종의 은어다. 은어는 외부의 집단에 비밀을 알리지 않으려고 하는 목적의식에서 쓰이며, 그것을 쓸 때 그들은 동류의식을 함께 느낄 수 있다.<sup>8)</sup> 의사소통의 측면에서 볼 때, 은어가 지배하는 관계는 이미 불신과 단절이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여기서 재미있는 시선을 발견할 수 있다. 와 먹이는 개 = 밀주라는 등식에서 상반된 시선을 발견할 수 있다. 세무서 측에서는 아주 은밀한 밀주(密酒)이지만 우리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와 먹이는 개’로 인식하고 있다. 하나는 금기의 영역으로 또 다른 하나는 자유의 영역으로. 이러한 언어의 이질성은 곧 삶의 이질성을 말한다. 즉 민과 관은 상호 의사소통의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의사소통이 단절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녀는 그제서야 요령이 트이는 것 같았다. 혼것들은 누르면 된다!’

(중략)

“다른 일두 아니구 충효정신, 새마음갖기 등은 정부주도형 문화사업어구 해서 가능한 것은 협조를 해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관내에도 도범 마을이 허다해서 아무데나 상관 없겠음니다만, 관항리 그 중에서도 특히 놀미부락은 곤란허다 이겁니다. 싸가지가 없어요. 주민들의 의식이 구태의연하구 저수준이구, 하여간 그중 낙후된 동네니께 .....군에서부터 찍혀서 아예 내놓다시피헌 동네입니다.” (174-176)

‘아예 내놓다시피한 동네-느티울’에 대한 태도는 상호의존성의 공간이 아닌

8) Argot, cant 『The Random House Dictionary of the English Language』

라, 나아가 '누르기만 하면 되는 - 이미 오랫동안 민과 관의 대립이 존재해 왔고 이 대립은 농민의 삶 속에 근거하지 않은 -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담론의 체계를 유지하려는 주체(관)의 폭력성에 기인하고 있음을 폭로하고 있다.

유신헌법 제정을 비롯하여 일련의 폭력적 국가개입을 강화하였던 이른바 70년대의 '유신체제'는 단순히 독재권력으로서 치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축적체제의 위기에 대응하려는 국가 권력의 폭력적 재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sup>9)</sup> 폭력이 법에 의해 아무리 은폐되어 있을지라도, 사회의 위계질서는 궁극적으로 폭력에 의존하고 있다.<sup>10)</sup> 70년대부터 유신정권은 새마을 운동의 전개를 통해 농촌사회에 근대화를 유포하여 이념공세와 질서재편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70년대의 '근대화'의 담론 속에는 '대화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일상이 배제되어 있다. <우리동네>에서는 교육현장에서의 일방적인 전달, '느티울'에 대한 관의 배제 등을 통해 형상화된다. 이에 대해서는 3-2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 3. 구술담론과 제도의 희화성

먼저 <우리동네>의 발화방식을 보자.

아직은 누구 들으라고 허투루 떠들 주제가 아닌 것 같고, 입이 싸고 걸은 것이 평생 못 고칠 고질이기에 아내까지도 젖혀놓고 운조차 떠보지 않았지만, 농협과 단위조합에서부터 축산조합, 원예조합, 연연초 생산조합, 산림조합, 나아가 농촌 지도소까지도 농사꾼들 스스로 일꾼을 뽑아 농업정책과 농산물의 제 값이 농민으로부터 나오게 하고, 농사는 농사꾼의 것임을 분명히 하여 영농의 자유가 보장되며, 정부의 미덥지 못한 통계를 바탕으로 한 농축산물의 무모한 수입정책을 중단함은 물론, 집권자의 업적 선전에 목적을 둔 눈비음 행정과 거리의 농업이 이에서 그치고, 갈피없는 유통구조의 외면이나 무관심에 의한 농촌의 희생이 이 이상 계속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서기 전에는, 여태껏 몸서리나게 받아온 차별과 업신여김을 팔각판으로 돌려가면서까지 그대로 농사에 매달려 덧없이 죽어날 생각은 조금도 없었던 것이다. (320)

9) 박현채, 『청년을 위한 한국 현대사』, 소나무, 1995, p.249

10) M. 호르크하이머/Th. W. 아도르노, (김유동의 역), 『계몽의 변증법』, 문예출판사, 1995, p.157

끊어질 듯 끊어질 듯 하면서도 끊어지지않고 이어지는 이러한 발화방식은 첨가적 구조에 의존해 있다. 이처럼 장황하고 다변적인 발화의 방식은 '쓰기'가 아닌 '말하기'의 태도에 의존<sup>11)</sup>해 있음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특히<우리동네>의 구술적 언어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분석적인 언어가 지배하는 규범적이고 공식적인 언어가 아니라, 감정적이며 통합적인 상소리나 욕설로 지배된 비공식적, 탈규범적 언어에 속한다. 이문구 소설이 그 독특한 세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은 이들의 불행한 삶을 그리는 데 있어서 이들의 사투리를 그대로 살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의 사투리는 모든 것이 중앙집권화 되고 획일화되는 우리의 현실에서 지방색을 갖추고자 하는 일종의 다양한 세계와 삶에 대한 가장 강렬한 꿈의 표현이다.<sup>12)</sup>

지배계급에 의해 사용되는 언어가 공식적인 언어라면 주로 일반 대중에 의해 사용되는 언어는 비공식적인 언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비공식적인 언어는 공식적 언어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인습이나 형식 혹은 품위와 같은 규범을 의식적으로 깨뜨리고자 한다. 그것은 공식적 언어의 특징을 일체 거부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언어적 반항이라고 할 수 있다.<sup>13)</sup>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구술의 언어는 '몸으로 글쓰기'의 전형으로 이야기와 경험이 유리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언어이다.<sup>14)</sup> 구술의 언어는 앞뒤가 분명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행위로부터 벗어난다. 때문에 거침없이 흘러가는, 그래서 멀리 퍼지는 언어를 형성한다.

구술의 언어는 단순히 사고를 표현하는 기호가 아닌 행동의 양식을 의미한다. 말하기 자체가 역동성과 내면성을 확보하는 목소리의 문학과 연결되면서

11) 월터 J. 옹은 구술문화에 입각한 사고와 표현의 특징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①종속적이지 아니라 첨가적이며 ②집합적이며, ③장황하거나 다변적이고 ④보수적이고 전통적이다. ⑤인간의 생활세계에 밀착된다. ⑥논쟁적 어조가 강하다. ⑦객관적인 거리유지보다는 감정이입적 혹은 참여적이다. ⑧항상성이 있으며 ⑨추상적이라기보다 상황의존적이다.

월터 J. 옹, (이기우, 임명진 역),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1995, pp.60-90

12) 김치수, 『공감의 비평을 위하여』, 문학과지성사, 1991, p.126

13) 김옥동, 앞의 책, pp.255-256

14) 김성래, 『여성의 자기진술의 양식과 문체의 발견을 위하여』, 『또 하나의문화』 9호, 1992, p.133

자연스러움과 직접적인 전달 가능성을 확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구술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곧 타자와 직접 연결되려는 시도이며 지배적 세력의 '쓰기'의 언어에서 도외시 되었던 '말하기'의 언어에 대한 강조라고 할 수 있다.

목소리로 된 말은 사람들을 굳게 결속하는 집단을 형성한다. 한 사람의 화자가 청중에게 말을 하고 있을 때, 청중 사이에 그리고 화자와 청중 사이에도 일체가 형성된다.<sup>15)</sup>

구술양식에서 청자는 작품 속에 설정되어 있는 인물일 수 있지만 텍스트의 공간을 떠나면 그 텍스트를 읽는 독자일 수 있다. 때문에 독자들은 구술의 언어로 표현된 소설을 읽으면서도 그것을 듣는 것 처럼 느끼게 된다. 구술 자체가 청자에게 화자가 직접 말을 건네는 형식이기 때문이다. 독자와의 적극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해주는 형식상의 배려가 구술인 것이다. 이러한 구술의 태도는 자기체함을 상대와 공유하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낸다.<sup>16)</sup>

그러나 못자리 버무리며 무살미 하기 앞서, 그나마 날포를 못넘기며 굶던 가랑비만 서너물 한 뒤, 보리누름해서부터 입매껏 구름마저 드물었으니, 일만찬 하게 열무라도 빼어본다고, 아무리 씨앗을 배게 부어도 푸서리듬에 개똥참의 움나듯 씨 서는게 드물어, 아예 한갓지게 버릴치로 돌려 목정이 만들고, 그 위에 호랑이 새끼쳐도 모르게 갖고 육은 바랭이 개비름 따위나 베어다가 돼지 참 주는 집만 해도 여러 가구였다. (11)

'-앞서(서), -한 뒤(에), -드물었으니(까), 본다고, 드물어(서), -만들고' 로 이어지는 이 발화의 구조도 역시 첨가적이다. 또한 여기에서 주체의 자리바뀔 현상이 일어난다. 다시말해, 주체가 대상이 되고, 대상이 주체가 되는 혼재현상

15) 시각에서는 보고 있는 사람이 보고 있는 대상의 외측에 그리고 그 대상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음에 반해서 청각에서는 소리를 듣는 사람의 내부로 쏠려 들어가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각은 '토막나는 감각'이며, 청각은 통합하는 감각이다. 즉 시각의 전형적인 이상은 명료성, 명확성, 분리성에 바탕을 두고 있지만 청각은 내면성과 하모니(harmony), 하나로의 통합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구술된 말이 지닌 이러한 내면화된 힘은 인간존재의 궁극의 관심인 성스러운 것과 어떤 특수한 방식으로 결부되어 있다. 대부분의 종교에서 목소리로 된 말은 의식이나 예배를 실행하는 데 남김없이 기능을 발휘한다. (윌터 J. 응, 앞의 책, pp.112-118 참조)

16) 구술의 언어에서 배운다거나 안다는 것은 알려지는 대상과 밀접하고도 감정적이며 공유적인 일체화를 이룩한다는 것이다 (윌트 J. 응, p.74)

이 일어난다. 이를 확대해서 보자면, 이러한 서술태도는 주·객의 구분이 없이 주·객이 서로 어우러지는 세계관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임우기는<sup>17)</sup> 서술자의 언어가 단순히 매개의 언어가 아니라 정황 그 자체의 언어이기를 갈망하는 태도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표음성이 우세한 언어의식 속에서는 표음성이 현장성을 이끌고, 이런 표음적 현장성을 바탕으로 그 현실적 정황을 서사한다. 그 현장성과 서사성 사이의 '걸쳐짐' 때문에 전통적 언어는 정황과 의식 사이를 넘나들며 참여한다. '전통언어'는 정황과 언어의식 사이의 막으로 기능하지는 않는다. 만약 전통언어가 정황과 의식 사이의 막이라 한다면 그 막은 아주 불완전한 구멍이 송송 뚫린 막이다. 막의 언어의식으로는, 즉 계몽적이고 합리주의적 '매개'의 언어의식으로는 정황과 의식, 주관과 객 사이의 넘나들음을 수용하지 못한다.

이문구는 작가가 인물의 외부에서 독자에게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인물의 내부에서 인물과 함께 느끼고 생각하는 방식을 즐겨 택한다.<sup>18)</sup> 이러한 서술태도는 사건이나 사물 자체의 분석적 묘사가 아니라 통합적 태도의 바탕 위에서 형성된다. 즉, 서술자와 경험주체는 이미 체험의 공유화에서 출발하여 자기 체험을 공유화 하려는 의지 뿐만 아니라 나아가 공유화하여 일체감을 형성하고자 한다. 여기서 구술언어가 갖는 현장성, 직접성, 체험성의 구체적인 힘이 생성된다.

이는 권위적인 담론을 형성하고 있는 관의 언어와는 대조적이다.

“그런디 교육에 들어가기 전에 지가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 퇴비 좀 부지런히 해달라 이겁니다. 어떤 동네를 가볼래두 장터만 벗어났다하면, 질바닥으 풀에 걸려 땀길 수가 읊는 실정이더라 이애깁니다. 아아 여러분들 두 느끼셨을 중 알구 있습니다마는, 풀에 껌겨서 자즌겨가 안나가구 오도바 이가 뒤루 가는 헛편이더라 이겁니다. 풀 버셔 남 취유? 퇴비 허면 누구 농사가 잘 되느냐 이 애깁니다. (중략) 그런디 퇴비들을 쌓실 때는 몇가지 유의를 해주시라 이겁니다. ..깨끗하게 쌓주시라 이겁니다.” (중략)

“금년에는 단군이래 목표량을 초과 달성해서 쌀을 수출까지 했는데, 이것은, 두말허면 사상이 의심스러운 새끼여, 이것은, 모두 농민 여러분들의 자조 근면 협동정신의 발현이요 총화단결의 결실이더라 이겁니다.” (66)

17) 임우기, 앞의 글, p.373

18) 염무웅, 「60년대 현실의 소설적 제시」, 『창작과 비평』, 1974, 가을, pp.756-757

농민의 직접적인 언사가 아니라 ‘교육받은’ ‘관변적인 언어’는 구어체가 아니라 글말의 형식이며, 경험주체와 서술화자가 분리되어 나타난다.

특히 ‘-더’에 유의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더’는 느티올 농민들의 말에서는 거의 발견할 수 없지만 관공리 사람들의 말에서는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형식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더’는 회상, 보고, 과거, 지각, 경험, 무의도, 의식의 단절의 기능을 한다.<sup>19)</sup>

‘-더’는 과거 사건에 대한 주관적 지각을 회상(혹은 발화, 서술) 하는 의미를 지닌다. 즉 화자의 직접적 지각이나 권위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발화시 과거로 시점이동을 수행하는 서술형으로 권위적 담론을 생성해 낸다.<sup>20)</sup>

한편, 욕설이나 상소리는 이러한 권위적 담론에 도전하는 한 형태로 볼 수 있다.

“드런년, 물 팔어놓구 국 쳐먹는 소리 허구 자빠졌네. 돈 가져갔으면 그저 가져가데 물나는 아궁이 불 때 췌으면 구만이지 무슨 쌍소리여, 아가리를 짓 췌어 놀라.” (158)

“도독늬. 초약 풍약 다 헤쳐먹더니 오관 때구 자빠졌네. 동짓달에 개떡 짬는 소리 구만 허구 값어, 못떼어먹는다, 일곱 매 뭉구 하를 관광가기 전에는.....”(158)

“격에미 승이 고가던 게다. 미친년덜 .... 제 손목쟁이루 재봉틀 나사 하나 못만지는 주제에 뭐? 공업단지? 애 만근아 내다봐라, 동네 개 웃는소리 난다. .... 그새 뉘새나게 췌었구나. 촌년덜이 전에는 고쟁이 밀이서만 고린내가 슬슬 나더니, 인저 오장육부는 저리가구 대갈뻐가까장 끓어 츠지는구먼.” (41)

이와 같은 욕설이나 상소리 혹은 저주나 악담은 대개의 경우 그 내용에 있어서 인간의 신체, 그 중에서도 특히 성기나 엉덩이와 같은 바호친이 말하는 이른바 ‘신체의 하위 층위’와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어조에 있어서는 ‘카니발적인 웃음’에 기초를 두고 있다. ‘웃음이란 말해진 것에서 말해지지 않은 것을 찾는 ‘대화적 상상력’의 표출이고 틈새에서 의미를 찾는 부재의 축복이다. 그것은 온갖 이질성이 한곳에 모여 의미의 풀연성을 되새김질하는 대

19) 이진경, 「던의 통사제약과 의미」, 연세대 석사논문, 1988, pp. 6-23

20) 나병철, 『한국문학의 근대성과 탈근대성』, 문예출판사, 1996, pp.288-289

화의 장이기에 카니발적이다.<sup>21)</sup>

이들은 '웃다'라는 행위를 통해 굵기로부터 해방되는 희열감을 느낄 수 있으며 비참한 현실로부터 탈출할 수 있게 된다.<sup>22)</sup> 즉 괴롭고 부정적인 세계를 주관적인 시선에 의하여 즐겁고 긍정적인 세계로 파악함으로써 부정적인 현실보다 긍정적으로 변화된 현실에 강조점을 두게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카니발에서 웃음은 공포와 고통의 심각성에 의해 만들어진 우울함으로부터 세상을 해방시키는 것으로 즐겁고 자유로우며 재생적이고 창조적인 것이다. 즉 웃음은 생성적인 힘을 지닌 것으로, 그것을 통해 인간의 영혼을 억압하는 모든 것을 파괴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카니발의 웃음은 일상적인 삶에서 해방되어 유토피아적인 자유를 만끽하게 한다 즉, 이러한 웃음은 양면 가치적인 성격을 지닌다. 한편으로는 파괴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 창조적이고 생성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현존하는 모든 제도의 도순과 한계성을 강조하는 카니발의 웃음은 확실한 것을 불확실한 것으로 안정된 것을 불안정한 것으로 바꾸어 놓는다. 그래서 다양성과 변화의 감각을 살아 있게 한다. 그러한 웃음은 변화하는 계절, 태양과 달의 주기, 초목의 죽음과 소생, 농사절기의 순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순환 속에서 새롭거나 다시 태어나는 모든 것들은 사람들의 더 행복한 미래에 대한 희망을 표현하는 긍정적인 요소로서 강조된다. 이렇게 변화와 생성을 강조하는 것은 과거를 공식적으로 강조하는 것, 너무나 완전한 탓에 영원이 될 정도인, 현재의 유지상태에 대립한다. 카니발을 통해 민중들은 영원한 것, 움직일 수 없는 것, 절대적인 것, 바꿀 수 없는 것 같이 음울한 범주들의 억압에서 벗어나 즐겁고 자유로운 웃음을 허용하는 세계, 완성되지 않고 열려진 성격을 가진, 변화와 갱신의 기쁨을 가진 세계와 만난다.<sup>23)</sup>

카니발의 웃음의 지대는 접촉의 지대로서 반대되는 것들이 서로 일치하며 양립불가능한 것이 서로 연결된다.<sup>24)</sup> 이분법의 대립 구조 속에서 상향적인 것

21) 김옥동, 앞의 책, pp.255-256

22) 인물관계의 역전현상을 통해 웃음의 영역은 더욱 확대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과제로 남겨두기로 한다.

23) K. 클라크/ M. 홀퀴스트, (이득재, 강수영 역), 『바흐첸』, 문학세계사, 1993, p.290

24) 미하일 바흐첸, (전승희외 역),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창작과비평사, 1988, p.440

을 하락시키고 하향성의 부정적 가치 속에서 새로운 힘의 원천을 찾는 태도 자체가 양가적이다.<sup>25)</sup>

#### 4. '의심하기'와 위반의 공간

느티울 사람들은 쉬지 않고 교육을 받는다. 의무적이고 강제적인 분위기에 의해, 이 교육의 현장이야말로 느티울 사람들이 만나는 근대화의 가장 가까운 구체적 실체이다. 영농교육, 민방위교육, 새마을 교육 등. 형식적이고 강제적인 이 교육현장에서 주체와 타자의 이원적인 관계가 드러나는데 이 때 '의심하는' <우리동네>의 농민들의 태도는 '관'으로 상징되는 합리적인 질서를 해체하도록 위협하는 타자로 볼 수 있다

“일 햅타는 삼천평입니다. 앞으루는 이백 평이니 말가웃지기니 허구 전근 대적인 단위는 사용을 삼가주셔야 되겠다- 이깁니다.”

말허리를 끊으며 김이 말했다.

“이 바닥에 햅타르를 기본단위로 말할만치 땅 너른 사람이 뗏이나 되느냐 이계유”

“내 말은 그렇게뻬이 안들리유? 저 햅교 교실 벽뻬기 좀 보슈. 뻬라구 썬 불엿유? 나라 사랑 국어 사랑.....우리 말을 쓰자는 것두 국가시책이래유. 옛 날버텨 관공리 말 다르구 농민들 말 다른 게 원칙인 계유. 천동면이 이렇게 촌인가....꿈” (32)

민방위교육장에서 '평'이니 '말가웃지기'니 하는 전근대적인 말을 사용하지 말고 햅타르(ha)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종용하는 강사에게 우리동네 김씨가 '관공리 말과 농민들 사이의 말이 다르냐'고 항변하고 있는 장면이다. '삼천평=1ha'에서 알 수 있듯이 'ha'는 우리의 경험적 현실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서구 근대과학의 산물이다. 동일화의 시선으로 구획을 짓는 논리가 'ha'에 함의되어 있다. “이 바닥에 햅타르를 기본단위로 말할만치 땅 너른 사람이 뗏이나 되느냐”는 항변을 무시한 채 'ha'사용을 고집하는 관의 태도는 이미 ha라는

25) 권택영, 「미하일 바흐친과 후기 구조주의」, 김옥동 편, 「바흐친과 대화주의」, 나남, 1990, p.256

기호에 내재되어 있는 동일시의 재생산에 다름 아니다.

또한 재래품종을 신품종으로 바꾸라며 온갖 감언이설로 설득하고 있는 농촌 지도소속의 말에 농민들은 쉽게 동의할 하지 않는다. '농촌 지도소 강사들이 그들에게 백일기도를 드린다고 해도 신품종으로 바꿀 사람은 대농 몇사람에 불과하리라'며, **李**씨는 농촌지도소의 말을 믿지 않는다.

“선생님 말씀이 그르다는 것이 아니라, 깨목생이나 뿔 보구 선생 말을 믿겼느냐 이겨유. 아시다시피 베 한 가마 공판한들 뿔 풀이나 꺾어집디까. 제우연탄 이백장 값...구두 한 켤레 값...맥주 열 병 값...모래 한 마차 값...먹매 합쳐 들일꾼 사흘 품삯두 채 못되는데... 제아무리 중산을 해보지, 물가 오름새에 대면 터문생이나 있겠다. 중산 해봤자 좋아할 사람은 저기 따루 있시다.”  
 “그 사람(**李**: 필자) 생전 춤 적당한 소리 한 번 해 보네 그려” (68)

**李**씨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李**의 말에 동조하고 있다.

이렇게 농촌지도소와 농민들 간의 ‘일체화’<sup>26)</sup>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처럼 일체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가장 큰 이유는 ‘관리자들에게 오랫동안 무시당하고 속아 살아왔으며 이제는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믿으려 하지 않는’ 데에 있다. 즉 설득커뮤니케이션 공간의 발신자와 수신자의 상호소통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발신자 주체의 신뢰성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말이다. 그 이유가 이러한 데도 주체의 반성적 사유는 좀체 찾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일방적인 강요만을 내세운다.

“농촌지도소에서 허시라는 것만 허셔. 그게 애국입니다유.” 내가 내 집구석 지집농사 자식 농사는 실농하면서두 여러분들이 농사 잘 지으시라구 돌려댕기는, 시방 이 자리에 서서 떠드는 이 최아무개, 이 최아무개가 애국자라면, 이 최아무개 말을 잘 듣는 여러분들두 애국자더라 이깁니다. (65)

이처럼 분명하게 경계지워지는 관계 속에서 경계의 해체는 질서나 물리적 도덕적 제약, 익명성의 압력이나 일치에 대한 요구를 의미하는 합리성, 이성에 바탕을 둔 중심의 글에 대한 부정과 의심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절대 의

26) 설득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은 설득자와 피설득자간의 ‘일체화’이다. 차배근 외, 『설득커뮤니케이션』, 나남, 1990.

심해서는 안되는 곳에서의 의심과 회의는 곧 금기의 위반을 통한 전복의 의미를 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은 관이나 관공리 말은 못 믿겠다 이젠다”(65)

“금년에는 단군 이래 목표량을 초과 달성해서 쌀을 수출까지 했는데, 이것은, 두말하면 사상이 의심스러운 새끼여, 이것은, 모두 농민 여러분들의 자조 근면 협동정신의 발현이요 총화단결의 결실이라 이젠입니다.”(66)

농촌지도소에서는 '농촌 지도소에서 허시라는 것만 허서. 그게 애국입니다 유' 라며 어떠한 다른 가능성도 배제한다. '두 말하면 사상이 의심스러운 새끼여'라는 말은 어떠한 대화의 가능성도 차단하고 있는 권위적담론의 극대화이다. 특히 70년대의 반공주의는 권위주의의 정당성을 보장해주는 근거로서 그리고 성장주의는 권위주의의 정당화를 위한 명분으로서 작용하게 된다. 권위주의는 개입과 감시의 수단으로서 민주주의와는 뚜렷이 구별되는 배타적 특성을 갖는다. 권위주의는 민주주의로 이행하는 과도기적 정치형태가 아니라 역사적 사회적 결정기제가 뚜렷한 하나의 독자적 정치형태라고 보는 편이 적합하다. 권위주의는 정권의 합법성이 취약하고 이데올로기적 통합성의 정도가 매우 낮으며 정치적 무관심을 조장하면서 부분적으로는 민주적 제도를 수용한다.<sup>27)</sup> 영농교육장에서 통일벼를 심으라는 강사에게 농민들은 농사기술은 책상물림헌티 배우는 것이 아니라 흙하구 물헌티 즉접 배워야 쓰는 거라'며 의심하기도 하고 우스갯소리로 분위기를 흐뜨려 업속해야 할 교육현장의 분위기를 와해시킨다.

의심하기는 결국 물음의 행위와 연결된다. 물음은 자기 자신의 사유조차도 회의하고 의심하는 데서 발생한다. 대상에 대해 확정을 짓는다는 것은 판단을 내린다는 것이고 이는 고정된 시점으로 사물에 대해 구분과 차별을 내림을 의미한다. 이른바 관여성<sup>28)</sup>의 기준이 그것이다. 이에 의할 때 사물은 위계적 이분법의 사유로 정리되고 만다. 그러나 사유의 열린 대화성을 추구하는 에세이

27) 임현진·송호근, 「박정희체제의 지배이데올로기」, 역사문제연구소 편, 「한국정치의 지배이데올로기와 대항이데올로기」, 역사비평사, 1994, pp.174-194 참조

28) P.지마, (서영상 외 역), 「소설과 이데올로기」, 문예출판사, 1996, pp.40-69 참조

에서 이 이분법은 자유로운 사유를 방해하는 기능을 할 뿐이다. 따라서 에세이적 사유는 스스로 자신의 사유에 담겨있는 전제들을 뒤집는다. 사유는 스스로를 사유대상으로 하는 가운데 '사유의 과정성'이 가장 핵심적인 것이 되기 때문이다. 과정은 결론이나 확답을 추구하지 않는다<sup>29)</sup>

권위적 담론의 경우는 우리에게 끌어내고자 하는 말 그 자체의 자유로운 진유나 융합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무조건적인 충성을 요구한다. 그것은 문맥과의 교류나 그 경계선의 넘나들, 어떠한 전이도 용납하지 않음으로써 내적 흐트럼없는 상태로 남는다.<sup>30)</sup> 아도르노에 따르면 완결하다는 것은 이질적인 것, 통합될 수 없는 것,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 추출된 것 등을 억압하고 배제하는 것을 대가로만 가능하다.<sup>31)</sup>

다양한 가능성의 차원에서 특정 대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현재 매우 당연한 것으로 확정된 진리 속에서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는 일의적인 것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 동안 억눌려 왔던 새로운 것의 가능성을 되살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경우 반성적 사유는 기성의 확정된 것과 가능성 의식과의 상호대립에 의해 역동적인 변화의 차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어떤 것도 확고하고 절대불변한 것으로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 절대적 권력을 누리는 지배담론에 대한 반담론 생산에서, 이 가능성의 의식이 전복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의심하기', '머뭇거림'의 태도는 지배담론에 대한 대항의 의미를 지닌 반담론의 의미를 지향한다.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질서에로의 편입을 거부하는 움직임들을 통해 지배이데올로기의 틈을 벌려 나가며 다양성의 공간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다.

한편, 한 사람으로, 중앙으로 집중된 질서의 이면에는 엄청난 폭력의 그늘이 가려져 있음을 농민 김씨의 말을 통해 폭로된다.

“새마을 지도자를 내세웠으면 지도자한테 죄다 뺨기구 허라는 대루 따려 주어야 이치 아녀?”

29) 최인자, 한국현대소설 담론 생산 방식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7, 8, pp.140-141 참조

30) 위의 논문, p. 74

31) A.벨머(이주동, 안성찬 역),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변증법』, 녹진, 1998, pp.198-200

“그것은 한 사람이 여러 사람을 살게 하는 사업이 아니라, 한 사람을 위해 서 여러 사람이 죽어나자는 얘기허구 다름 디 옳는 소리여.” (20)

70년대의 한국사회는 근대화의 주춧돌을 놓았고 그 위에 한국형 고도 경제 성장의 거푸집을 마련했다. 세계에서 유래없는 고속성장을 일구어낸 70년대의 근대화는 그러나 고속성장의 음지에서 돌아난 사회적 폐단과 해악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로 곧 상쇄된다. 박정희체제는 한국을 개발도상국의 선두주자로 부상시키는 데는 성공하였던 반면, 경제성장의 인간적 긍정적 가치를 국민 모두에게 확산시키는 데는 실패하였다.<sup>32)</sup> 다시말해, 근대화라는 의미에서 70년대는 인간에게서 물질적 가난에의 공포를 몰아내고 인간을 주인으로 세운다는 목표를 추구해왔다. 그러나 근대화된 70년대의 농촌에는 또다른 재앙만이 승리를 구가하고 있었던 것이다.

### 5. ‘변두리 미학’을 위하여

그러므로 ‘의심하기’의 전략은 타자화의 대상에서 나아가 스스로 주체성을 확보하려는 태도로 나아간다.

이는 이장의 다음과 같은 발언 속에도 잘 나타난다.

촌놈은 나이가 명함이지만 나두 막말을 안힐 수웁어 허는디, 당신이 계장 님 만나러 예까장 온 속심을 모르지 았어. 물건 새우젓, 꿩은 황새기 짓 좀 농민들헌티 멕여보까 허구 시방 지켜았어 있는디, 아스슈, 아스라구, 나두 작년 갈잡여, 나두 정신 채렀다구. 작년만 해두 동네서 죽일놈 소리 들었구, 또 그래야 샀어. 허지만 나두 싫어. 왜냐. 나두 당신 말따나 젊어. 녀므 잔치에 설거지 해 주다 내배 꿩구, 동네서 소리 들어가며 살구 싶지는 았더라 이계여. 그러구 이전 내 개인의 문제가 아녀. 그럼 뭐냐. 하늘과 땅과 비바람두 눈보라두 우리를 보호해 줘. 심지어 개 돼지두 위를 위해 살어 그러나 사람은 틀리더라 이계여. (315)

상인 黃씨는 해마다 농협과 결탁하여, 농민들을 상대로 엄청난 폭리를 취하였다. 여기에는 이장 변차섭의 한 몫도 빠질 수 없다. 또다시 농협과 손잡고 장

32) 임현진 · 송호근, 앞의 논문, p.170

사를 해 보려고 온 황씨에게 변차섭은 이제 '나도 정신 차렸다'고 말하여, 더 이상 농민들을 속이는 '짓'을 할 수 없노라 잘라 말한다. 이에 황씨는 하는 수 없이 발걸음을 돌리게 된다.

<우리동네>에서 이문구가 우리에게 이야기 하는 현실은 근대화가 폭압적으로 추진되는 사회에서 무자비한 소외와 회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언어와 의식내부로부터 파악된 현실이다. 그러므로 '의심하기' 전략의 궁극적 의도는 이러한 대안적 공간 만들기의 의도가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느티울 농민들이 꿈꾸는, 다함께 '만들기'로서의 동네는 곧 주·객이 서로 어우러지는 '섞임'의 미학이 발생하는 곳.

뚝뚝은 무시로 자고 이는 마파람 곁에도 물너울은 번쩍거라고, 그때마다 갈대와 함께 뚝뚝을 에워싸고 있던 으악새 숲은, 칼을 뽑아 별빛에 휘두르며 서로 뒤엎겨 울었다. 으악새 울음이 꺼끌해지면 틈틈이 여치가 울고 곁들여 배짱이도 울었다. 김은 그것을 밤이 우는 소리로 여겼다. 하늘은 본디 조용한 데 으레 땅에서 시끄러웠다는 것도 더불어 깨우치면서. (315)

김이 느낀 밤이 우는 소리는 곧 느티울의 본래적 모습이다. 근대화에 가려진 이러한 본래적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은 근대화의 주체적 세력에 가려진 타자성의 발견을 의미한다. 자연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고 모든 동물이나 식물 또한 인간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보족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이론은 곧 세계를 지배의 피지배, 폭력과 억압, 주체와 객체의 우열논리에서 비롯하는 이원법적 사유 그 자체로 발전시켰음을 의미한다.<sup>33)</sup>

김이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느티울>은 바로 이런 공간이다. 자연과의 친화나 합일을 시도하며 이원론적 사유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김의 이러한 태도는 인간/자연, 주체/객체의 이원법적 관계를 해체하고 인간에 의해 훼손되고 가려진 공간의 느티울이 아닌, 관에 의해 타자화된 느티울이 아닌 모든 생명체가 함께 꾸려 나가는 삶의 근원지로서의 <느티울>을 꿈꾸는 것이다.

'우리동네'는 변두리이다 <우리동네>는 변두리 문학이다. 우리동네의 사람들로 변두리적 인간이다. 그러나 이 변두리 집단은 정적인 삶이 아니라 동적이

33) 金亭子, 타는 목마름에서 생명의 바다로, 한국해양문학 심포지엄 발표문(미간행), 1998. 8.

고 구체적인 일상을 살아간다. 이들이 획득한 구체성, 물질성으로 중심의 허구를 향하여 끊임없이 변주를 올린다. 중심의 이데올로기의 틈새로 카니발적 시·공간이 확장되고 이는 전복을 통한 재창조적 공간으로서의 가능성을 마련할 수 있다. <우리동네>에서 보여주고 있는 공동체적 집단성은 이러한 카니발적 공동체로 볼 수 있다.<sup>34)</sup>

바흐친의 축제의 개념은 대화성에서 출발한다. <우리동네>에서 모색하고자 하는 축제적 공간은 바로 이 대화성이 존재하는 새로운 공동체를 말한다. 그런데 이원론적 질서 안에서 중심과 주변으로 구획지어지던 전통적인 민/관의 대립적 삶은 농민의 삶 속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이고 권위적인 담론의 체계를 유지하려는 주체(관)의 폭력성에 기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때 이들의 관계는 상호주관성의 관계가 아니라 동일시에 의한 배제의 시선이 지배하는 이원적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경계를 해체하며 새로운 다양성의 공간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동네>의 서사전략이다.

본고에서는 두가지로 정리했다. 하나는 구술담론의 전략이고 다른 하나는 의심하기의 전략이다.

<우리동네>의 구술적 언어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분석적인 언어가 지배하는 규범적이고 공식적인 언어가 아니라 감정적이며 통합적인 상소리나 욕설로 지배된 비공식적, 탈규범적 언어에 속한다. 이러한 탈규범적인 언어가 갖는 의미하는 것은 모든 것이 중앙집권화되고 획일화되는 우리의 현실에서 다양한 세계와 삶에 대한 가장 강렬한 의지의 표현이다.

이분법적 관계 속에서 경계의 해체는 질서나 물리적 도덕적 제약 익명성의 압력이나 일치에 대한 요구를 의미하는 합리성, 이성에 바탕을 둔 중심의 글에 대한 부정과 의심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다. 절대 의심해서는 안되는 곳에서의 의심과 회의는 곧 금기의 위반을 통한 전복의 의미를 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의심하기', '머뭇거림'의 태도는 지배담론에 대한 대항의 의미를

---

34) <관촌수필> → <우리동네>의 시간적 흐름을 예상롭게 보아서는 안된다. <관촌수필>의 토대는 토정 이정합선생의 누씨에 있다. 이러한 점에서 <관촌수필>의 공동체는 전근대적이라면 <우리동네>에서 보여주는 '구술성'과 '의심하기'의 기반은 脫 토정선생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동네>는 탈근대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지닌 反담론의 의미를 지향한다. 권위적이고 억압적인 질서로서의 편입을 거부하는 움직임을 통해 지배이데올로기의 틈을 벌려 나가며 다양성의 공간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다.

구술언어와 의심하기의 서사전략을 통해 타자성을 발견하며 새로운 가능성의 공간으로서 '우리동네'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우리동네>의 서사전략은 한마디로 70년대의 지배담론에 대한 반담론의 형식으로서 의미지어진다고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이문구, 우리동네, 민음사, 1979.  
김옥동, 대화적 상상력, 문학과지성사, 1988  
김옥동 편, 바흐친과 대화주의, 나남, 1990  
김치수, 공감의 비평을 위하여, 문학과지성사, 1991  
나병철, 한국문학의 근대성과 탈근대성, 문예출판사, 1996  
박현채, 청년을 위한 한국 현대사, 소나무, 1995  
여홍상 편역, 바흐친과 문화이론, 문학과지성사, 1996  
역사문제연구소 편, 한국정치의 지배이데올로기와 대항이데올로기, 역사비평사, 1994  
임우기, 매개의 문법에서 교감의 문법으로-소설문체의 비판적 검토, 문예중앙, 1993, 여름  
전정구, 이문구 소설의 문체연구, 한국비평연구회, 1998  
진정석, 이야기체 소설의 가능성, 1970년대 문학연구, 예하, 1995  
최인자, 한국현대소설 담론 생산 방법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7  
A. 벨머, 이주동, 안성찬 역,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변증법, 녹진, 1998  
미하일 바흐친, 전승희외 역,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창작과비평사, 1988  
위르겐 슈람페, 원당희, 박병화 역, 현대소설의 이론, 문예출판사, 1995  
윌트 J. 옹, 이기우, 임명진 역,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1995  
P. 지마, 서영상, 김창주 역, 소설과 이데올로기, 문예출판사, 1996